

머
서
후
기
페
리
보
고



HOT ISSUE

머혹페보 여행특집

도시를 떠나 마을로

내 생애 이런 여행은 처음이야

중간평가를 마치고,

맛따라 멋따라(과일 편)

돌아왔다!
기타교실3

CONTENTS

5월 일정
에이네빈 마을살이
활동보고
우리들의 이모저모
개인 에세이

머혹페보[미얀마, 꺄로어: 밥먹었어?]

라운아띠 15기 미얀마, 양곤팀: 허성주 이난희 박은정 송진우

N0.263, Mahabandoola Street, Botataung Township,
Botataung P.O. 11161, Yangon, Myanmar.

5월 일정

SUN	MON	THE	WED	THE	FRI	SAT
1	2	3	4	5	6	7
		베이네빈 마을살이 4/28-5/10				
8	9	10	11 양곤 도착	12 짐 싸기	13	14
15	16	17	18	19	20	21
	비자트립 방콕, 태국/13-17		중간평가 준비	규홍간사님 오신날	웨베따 사랑방	중간평가 준비
22 양곤투어	23	24	25	26 rest	27 양곤Y 널서리	28 Atti Club
	중간격려 방문 19-25일					
29 여자방' 이사한 날	30 웨베따	31 야오플라바 널서리				



베네빈의 흐한 하늘




별과 아이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마을

'베이네빈 마을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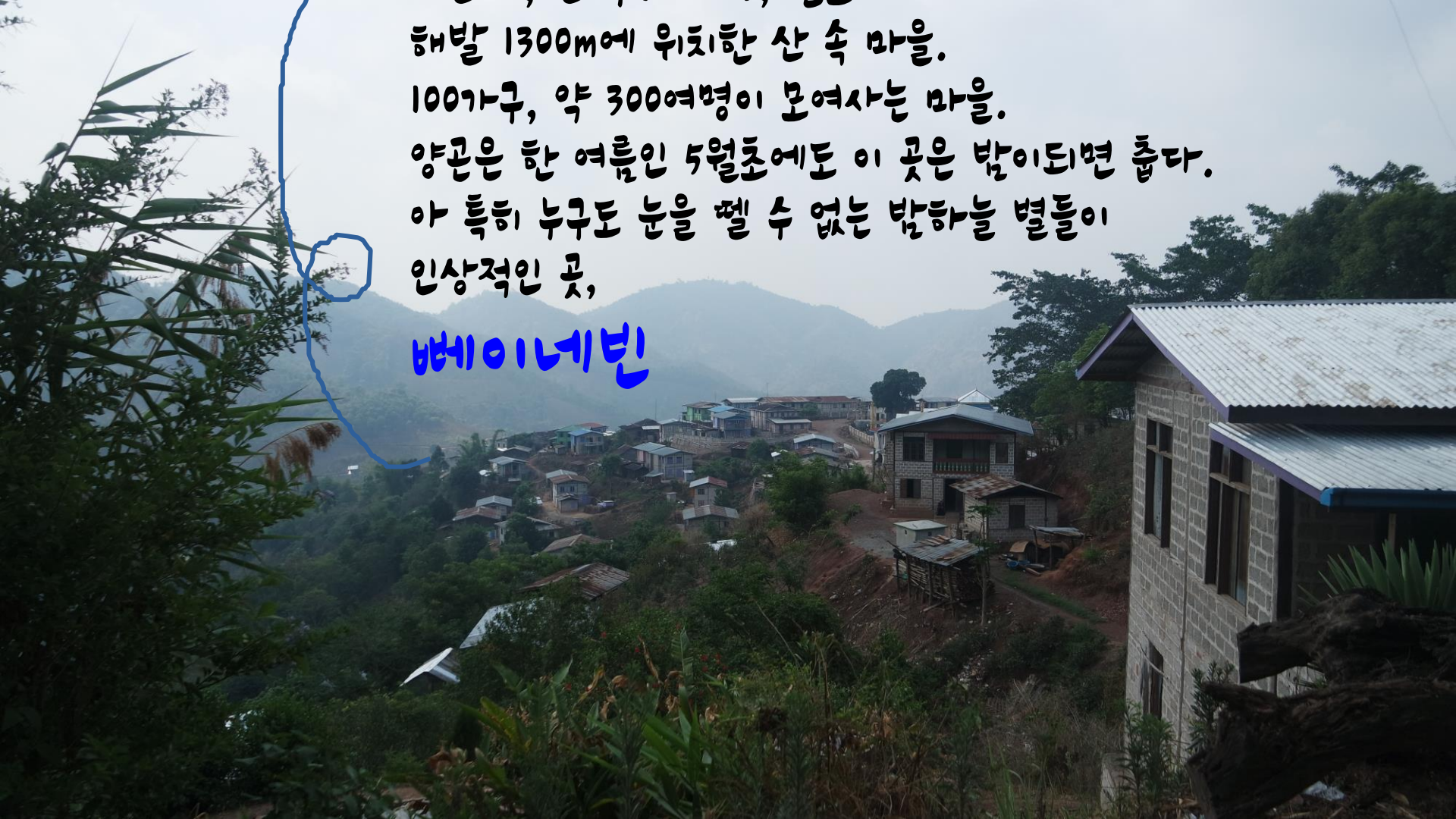


베이네빈 마을을 소개합니다.



미얀마, 샨 주(state), 켈로
해발 1300m에 위치한 산 속 마을.
100가구, 약 300여명이 모여사는 마을.
양곤은 한 여름인 5월초에도 이 곳은 밤이되면 춥다.
아 특히 누구도 눈을 찔 수 없는 밤하늘 별들이
인상적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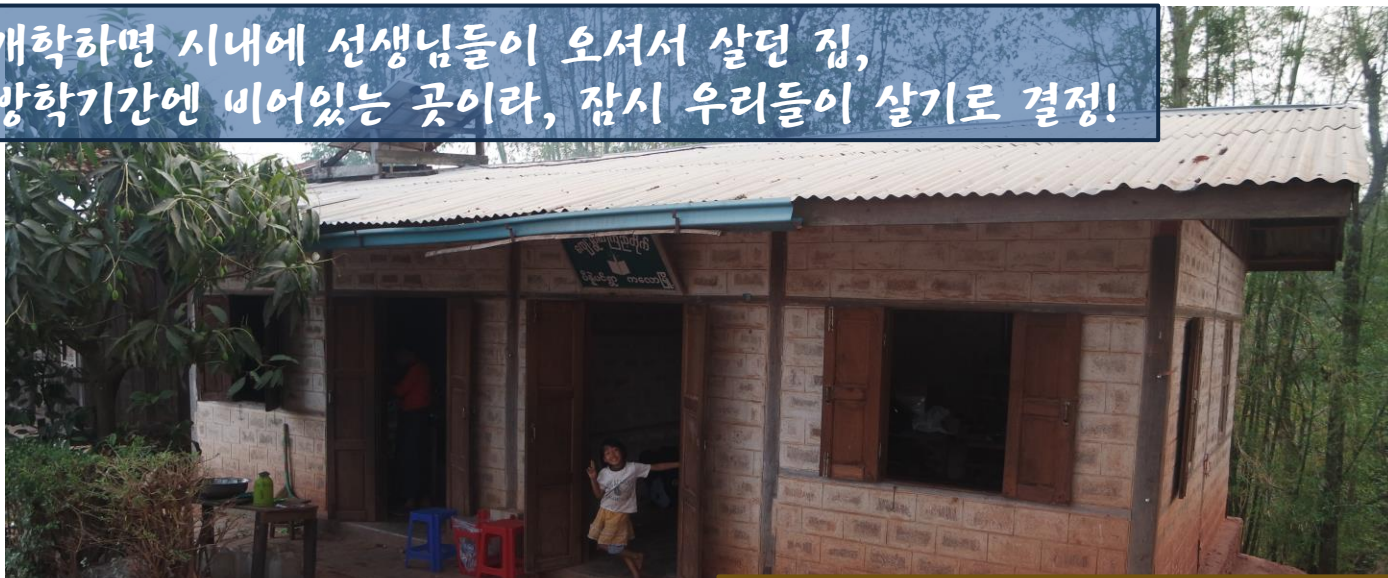
베이네빈



마을에서 살다, 우리집



개학하면 시내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살던 집,
방학기간엔 비어있는 곳이라, 잠시 우리들이 살기로 결정!



한 지붕, 두 집
주방 안으로 통해있는 작은 침대방(여자들방)
오토바이가 지키고있던 도서관 겸 큰 방바닥(남자들방)



마을에서 살다, 인물탐구



맨날 기타만 치는 형
꺄로이름(성주)



거의 로이엄마
케어, 제
(은정)

그냥
빼이네빈
마을사람이
(진우)



라온아띠 담당
체서야(요리사)
쫂리

장작태우기 장인
닝(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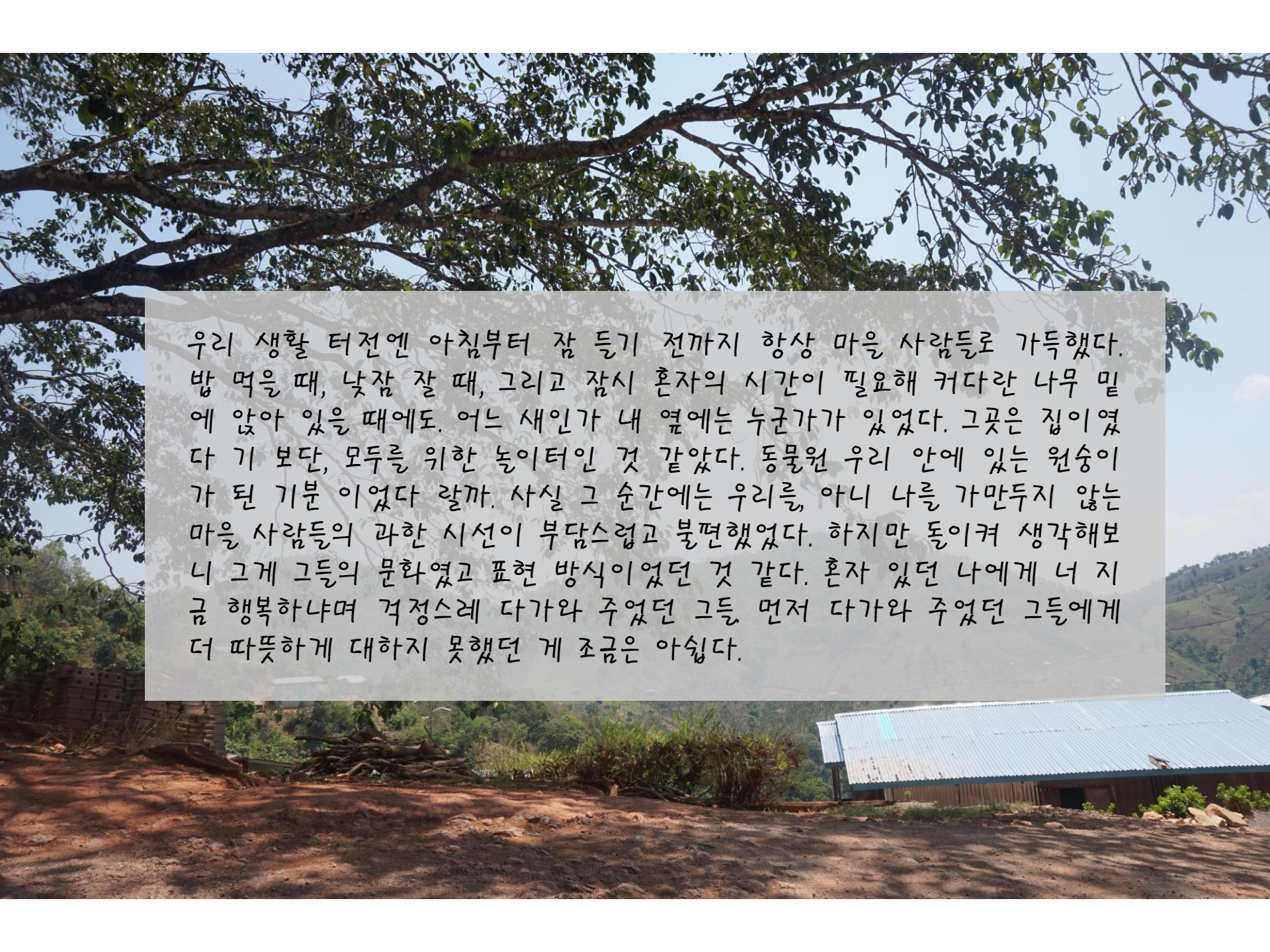
마을에서 살다, #1 하루



베네빈에서의 하루는 불과 함께 시작된다. 껏다 쪼다 할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닌, 진짜 ‘불’ 말이다. 아침을 먹기 위해 불을 지피는 것은 필수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날 우리의 밥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불과의 사투를 끝나고 힘겨운 아침식사와 설거지를 끝마치고 나면, 이런, 다시 점심을 먹을 시간이네. 분명 아침 식사를 했지만 그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칼로리를 소모했기에 다시금 배가 고파온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점심식사 후, 우리는 먹고 씻고 해야 할 물을 길러 오고 해가 지기 전에 샤워를 하고 다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그 날 그 날의 느낌은 너무도 달랐다. 도시와는 다르게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 베네빈에서, 매일이 같은 일상이었기에 오히려 내 주변의 것과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우리 생활 터전엔 아침부터 잠 들기 전까지 항상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다. 밥 먹을 때, 낮잠 잘 때, 그리고 잠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에도. 어느 새인가 내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곳은 집이었다기 보단, 모두를 위한 놀이터인 것 같았다.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가 된 기분 이었다랄까. 사실 그 순간에는 우리를, 아니 나를 가만두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과한 시선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게 그들의 문화였고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다. 혼자 있던 나에게 너 지금 행복하냐며 걱정스레 다가와 주었던 그들 먼저 다가와 주었던 그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게 조금은 아쉽다.

마을에서 살다, #2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제



러떼이는 녹차 종류의 찻잎을 말한다. 빼이네빈은 고산 지대라 찻잎이 자라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주로 러떼이 밭을 경작하며 수입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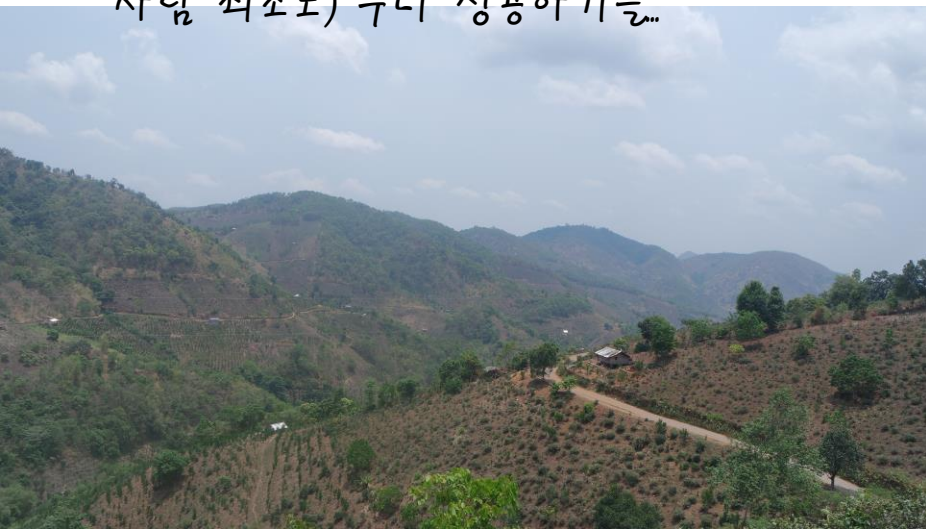
새벽 6시의 이른 아침에도 동네 할머니들부터 5살 6살 꼬마 아이들까지 각자의 망태기를 머리에 인 채 찻잎을 따러 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하루 낱을 잡아 건너편 집, 아이진네 밭 일에 함께 참여했다.

러떼이 밭은 아찔한 경사의 산 비탈길에 위치했다. 게다가 굉장히 미끄러워서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되고, 특정한 모양이 있는 찻잎을 골라서 따기가 어려웠지만 한 두시간이 지나고는 손이 빨라져 곧잘 하곤 했다.



잎을 따면서 아주머니들과, 솔리와 수다 떠는 것도 재미있었고, 목이 써근해 질때쯤 커다란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았다. 중간에 점심을 먹을 때에도 다같이 밥을 실컷 먹고 늘어지게 꿀잠을 자며 쉬는 것도 좋았다. 은정언니가 한국에서 심어본다고 나무 씨앗을 받아왔는데 (한국 사람 최초로) 부디 성공하기를...



마을에서 살다, #2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제



서야마 지의 생강 밭을 일구는 일은 이튼정도 함께 했었다.

지난번 수확하고 난 생강의 남은 잔 뿌리를 없애고 다시 흙을 고르게 하고, 고랑을 만들어 생강 씨를 심는 일을 했다.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농사이다. 제일 대단한 사람은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밥을 한 톨도 남기지 말아야 하고 특히 생강은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 생강차에 있는 생강도 다 먹어야한다. 모든 음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고된 노동과, 수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밭에서 일하고 나면 철이 드는 것 같다.

서야마 지는 이 생강 밭의 생강을 팔아 곧 아이가 생길 큰 아드님 가족을 위한 자동차를 사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다. 함께 심은 생강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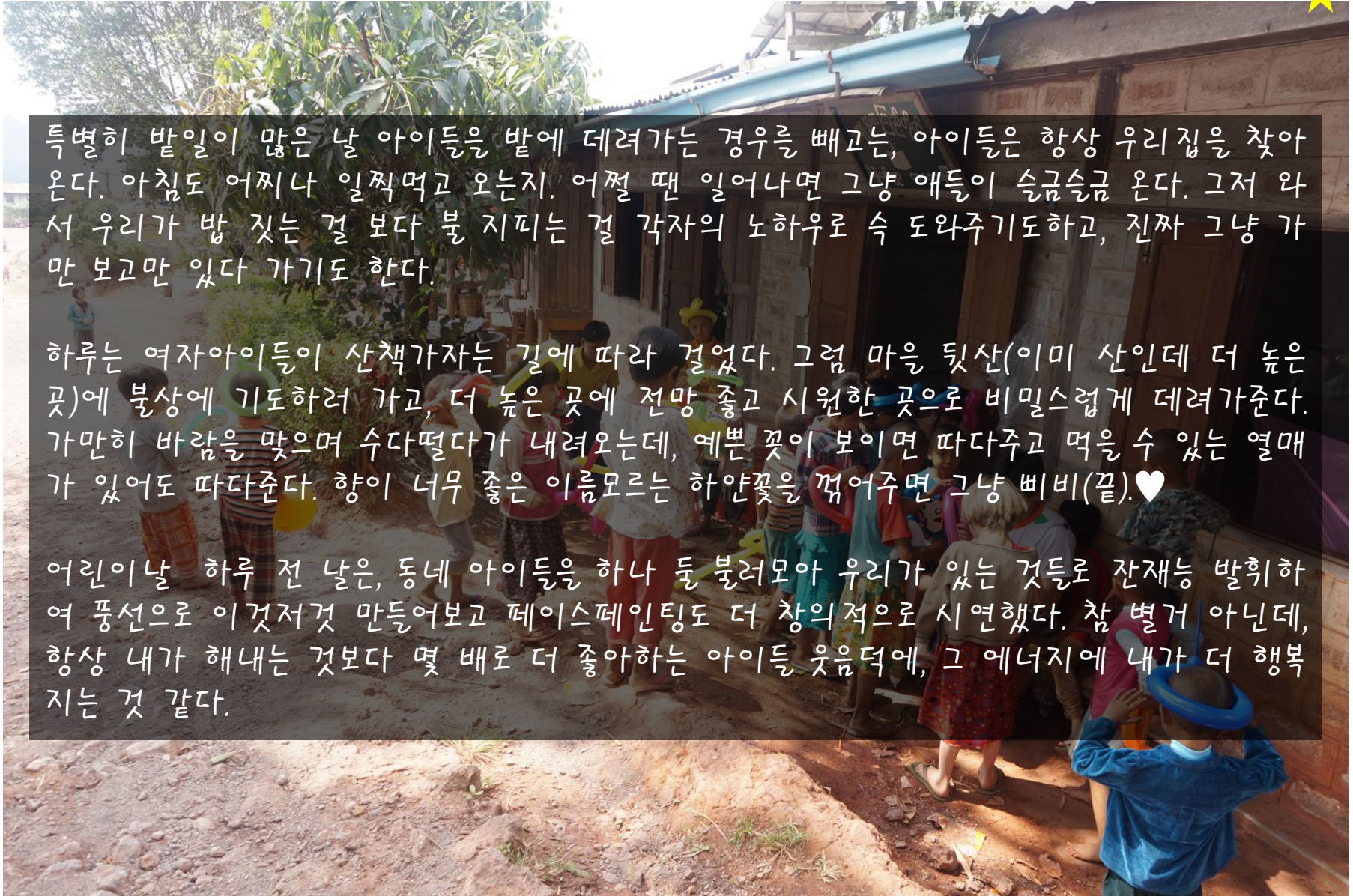
마을에서 살다, #3 같이 놀자



특별히 밭일이 많은 날 아이들은 밭에 데려가는 경우를 빼고는, 아이들은 항상 우리집을 찾아 온다. 아침도 어찌나 일찍먹고 오는지. 어쩔 땐 일어나면 그냥 애들이 쓱금쓱금 온다. 그제 와서 우리가 밥 짓는 걸 보다 불 지피는 걸 각자의 노하우로 숙 도와주기도하고, 진짜 그냥 가만 보고만 있다 가기도 한다.

하루는 여자아이들이 산책가자는 길에 따라 걸었다. 그럼 마을 뒷산(이미 산인데 더 높은 곳)에 북상에 기도하러 가고, 더 높은 곳에 전망 좋고 시원한 곳으로 비밀스럽게 데려가준다. 가만히 바람을 맞으며 수다떨다가 내려오는데, 예쁜 꽃이 보이면 따다주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도 따다준다. 향이 너무 좋은 이름모르는 하얀꽃을 꺾어주면 그냥 비비(꿀).♥

어린이날 하루 전 날은, 동네 아이들을 하나 둘 불러모아 우리가 있는 것들로 잔재능 발휘하여 풍선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페이스페인팅도 더 창의적으로 시연했다. 참 별거 아닌데, 항상 내가 해내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좋아하는 아이들 웃음덕에, 그 에너지에 내가 더 행복 지는 것 같다.







산산, 움, 로이, 칸소부, 흘랑, 아킴, 아유,
아카, 마오, 듀이 그리고 많은 베이네빈 아이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다, #4 또 다른 하루



베이네빈. 이름만큼이나 그 곳은 좀 이상한 곳이었다.

집으로 찾아온 아이들을 따라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보면 어느새 그들과 함께 과일서리를 하고 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 아래로 돌을 집어던지고 있고, 도랑에서 게를 잡고 있고, 스님이 묻혀 있다는 관을 유심히 구경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 이상한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도박판에서 배팅하는 스님과 술 먹을 때 부르라며 언질을 주고 가는 이모님은 약과(藥果)로 치더라도 어느 집이든 방문만 하면 가족이라도 돌아온 것처럼 밥과 차를 내주는 건 며칠이 지나도 낯설었다.

그 날도 시작부터 이상했다. 다 같이 산책을 하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집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멈췄다. 회색 티셔츠에 깡마른 아저씨는 분명 초면인데도 분구 대뜸 타라고 했다. 애써 먼 길 걸기도 귀찮고, 분명 우리의 목적지를 아니까 타라고 하겠거니 생각하며 별 의심 없이 뒷좌석에 올랐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 꽤나 깊은 숲과 밭을 지나는 동안에도 난 알지 못했다. 이 아저씨는 우리가 애초에 어디를 가려 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또 오토바이에 걸쳐놓은 오른쪽 다리 밑에서 덜컹덜컹 소리를 내는 게 공기총이란 사실은

땡. 땡. 총소리가 날 때마다 나무 위로 새들이 치솟아 올랐다.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새는 한 마리도 없었다. 마치 새들에게 이곳은 위험할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놀라는 공포탄을 쏘는 것 같았다. 분명 실탄을 쏘는데 말이다. 길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부터 캔, 병뚜껑 순으로 차근차근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훑길 한 가운데서 군대에서 배운 엽드려 싹, 쪼그려 싹, 서서 싹 같은 자세들을 취하며 어떻게든 한 발 맞춰보겠다고 아등바등했다. 한국에서 온 놈이 생소한 모습에 우스운지 아저씨는 한 발작 떨어진 곳에서 연신 웃어대기만 했다.

마을에서 살다, #3 또 다른 하루



주변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쏘다녔다.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외길이 난 곳은 어디든 달렸다. 새들이 실만한 나무들이 보이면 잠시 멈춰선 채 숨소리를 죽이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저씨는 손등을 입에 댄 채 새소리 비슷한 소리를 흉내 내기도 했다. 총만 잘 쏜다고 해서 새 사냥을 잘 하는 건 결코 아니었다. 생각보다 민감한 새들은 엔진 소리는 물론이고 앞사귀가 바스락 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금방 눈치 채고 떠나갔다. 한 곳 한 곳 멈춰 설 때마다 우린 꽤나 괜찮은 파트너십을 이뤄나갔다.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부터 조용히 총에 탄알을 장전해 건네는 것까지.

마침내 한 마리를 맞춘 건 아저씨였다. 카라티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녀석이었다. 청색과 푸른색이 고루 섞인 털색 탓에 떨어진 곳을 찾아내기까지 풀잎을 한참이나 뒤적거렸어야 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산을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아저씨는 허탕만 치는 날 안쓰러워하는 눈치였지만 어찌겠는가,

내 발소리만 들어도 도망가는 게 새고 애꿎은 나뭇가지만 맞춰대는 게 내 실력인 것은 가놓고 말해 솔직히 허공에 탄알만 버리고 있었다. 그저 손맛 하나 본 걸로 만족하는 수밖엔. 괜찮다며 애써 쿡한 척 했지만 속내는 못내 아쉬운 지 돌아가는 길 옆으로 난 나뭇가지 사이사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혹시나 잡혀줄 새 한 마리 있을까, 하는 바람에.

베이네빈. 이름만큼이나 이상한 곳에서 양곤으로 돌아온 뒤 버릇이 하나 생겼다. 전신주나 공사장 철근 위로 알맞게 앉아 있는 비둘기나 까마귀를 볼 때면 괜히 한 쪽 눈을 감고 조준하는 시늉을 하는 것, '그 총이 있었으면 단번에 잡는 건데...' 하며 입맛을 다시는 게 그것이다.

마을에서 살다, #5 베이네빈



케이(은정) 이 곳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장작으로 썰 나무를 베어오고, 먹고 씻고 마실 물을 걸러 오고 동네아이들과 놀거나 밥 해먹는 것 혹은 밭을 나가는 것이 전부이다. 전기가 없어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고, 밤하늘엔 별이 가득해서 별빛이 어쩡 밝다.

복잡하고 정신없이 하루가 어떻게 뒹하고 지나갔는지도 몰랐던 한국에서의 하루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한국에선 내가 매달렸던 이런저런 고민들도 여기서 전혀 필요가 없다.

심지어 여기서 돈이 있어도 딱히 쓸 모가 없다.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세상에 살지만, 나는 또 분명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나는 어떤 세상에서 보고, 듣고 살고 있었을까

(닝)난희 고개를 들었을 때 빌딩 숲 사이로 보이던 하늘이 아니라 그저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달이 산에 걸쳐져 있는 그런 광경도 태어나서 처음 볼 수 있었다.

산 속에서 좋은 공기,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러페이 밭에서 찻잎을 따며 사는 것이, 어쩌면 이런 삶이 더 행복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을 떠들석 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것 보다,

유유자적한 삶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러웠다.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원한다. 어떤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별과 아이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마을

베이니네빈
안녕

활동보고

✓넬서리 활동

넬서리



규홍간사님과 오랜만에 다시 찾은 '쉐베따 사랑방'
방학 중 임시로 진행했던 사랑방.

6월 초, 다시 학교가 개학하면 근300명의 아이들이 사찰안의 학교로 등교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방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만,
학교로 더 많은 아이들이 온다고하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지, 아이들과 뭘 함께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 봐야겠다.

5층 라이브러리에 날짜지난 신문지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많은 신문지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신문지 모자를 만들기로 결정.

그런데 수업해보니, 평균4세 아이들에게 신문지로 모자접기가 꽤나 어려워보였다.
선생님들과 우리들이 함께 나서서 아이들 각자의 모자를 완성하고보니,
그건 더 이상 신문지모자가 아니었다.

버려진 신문지도 아이들 머리위에 씌우면, 귀여움 폭발하는 꼬깔모자로 변신한다.



다시 양곤으로 돌아온 우리를,
누구보다 해맑은 웃음으로 반겨주는 이 **아이들과의**
꾸준한 **만남**들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들의 이모저모

방콕에서 방콕하지 않았던 사연

베트남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던 중 비자 문제가 생겼던 차에 진우 오빠의 아이디어로 급작스럽게 결정된 비자트립이었다. 갑작스럽게 정해지기도 했고, 또한 다른 나라에 가고 싶었던 우리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기에 조금 검소하게 짜여진 예산으로 방콕에 가게 되었다.

우리 넷, 산드라 간사님, 그리고 간사님의 딸 "에" 와 함께...

출발 전, 그래도 이왕 가는김에 둘러보고 싶은 여행지를 찾아보려 했는데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모른채로 그냥 비행기를 탔다. 진짜 그냥. 태국 관광지에 대한 정보 없이, 스마트폰 없이, 인터넷 없이, 넉넉한 경비 없이 아.. 내 생애 이런 여행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밤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방에서 방콕을 하며 쉬고 있다가 너무도 무리해 우리 네명은 숙소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중이었다. 평소처럼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투닥 거리면서 있었는데 옆에 한국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국 아저씨와 아이컨택을 하게 되었고 뭐 여차저차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반이 넘게 길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방콕을 수십번도 더 왔다갔다 하셨기 때문에 방콕 지리와 정보에 빠삭한 분이셨고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보기 어려운 알짜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lucky!!!

다음날 MRT에서 너무나 우연찮게도 그 분을 또 만나 우리는 그날 일정을 같이 다니기로 했고 아저씨가 맛있는 식사도 사주셨었다...

미리 인터넷으로 여행정보를 다 찾아냈었다더라면, 혹은 스마트폰이 있었다더라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인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그 전 해외여행과 다른 점이 있었더라면,

각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와 언니 오빠들이 중간에 서로 가보고 싶은 곳이 달라 잠시 동안 둘러보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잘 오고 있나 알 수 없어 불안하기도 했었다. 너무도 색다른 기분이었다.

예전에 드라마 응팔에서 봤었던 것 처럼 핸드폰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기다렸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여행지에서 구글맵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길을 물어보는 것도 좋았고, 특히 온 감각을 총 동원해서 오로지 "감"만으로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찾았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마지막으로 정말 점소하게 여행을 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딱 봐도 바가지 가격이 조금 붙은 물건 조차 흥정 하지 않고 딱딱 사는 다른 여행객들과는 달리, 나는 상인들과 서로의 눈치를 보며 협상을 해야 했었다.

숙소에 돌아갈 MRT돈을 남겨두어야 했기에...



돈 계산을 할 때는 머리속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태국 물가가 어떤지 계산을 할 때, 기준이 미얀마 물가였다가 한국 물가였다가 또 어쩔 땐 배이네빈 물가였기도 했다.

그러다 스친 생각, 똑같은 돈 만원이라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정도, 미얀마에서 살 수 있는 정도, 태국에서 살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뭐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차이가 컸다. 한국에서 만원이면 밥 먹고 차마시면 끝나는 거지만. 태국에서는 세 끼니를 해결 할 수 있는 돈이고, 양곤에서는 대략 일주일 용돈이고 배이네빈에서는 정말 큰 돈이다.

이런 차이가 그 곳의 경제 상황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뭔가 어떤 것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리로는 들었지만 짧은 기간동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살아 본 나로서는 마음 속에서 여전히 이해 불가였다.

흔히 말하는 더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사람과 못 사는 나라 사람이 자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으로 다른 여행지를 간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너무 달랐다.

아.. 아직도 혼란스럽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벌써? 중간평가

규홍간사님 오신 날

역시, 양곤팀을 특별히 예뻐하는 규홍간사님은 몇일이나 일찍오셔서 우리의 중간평가도 도와주시고, 활동지도 함께하며 숨은 양곤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셨다.^0^사랑합니다.
p.s.규홍간사님이랑 쉼비따(활동지)간다고? 그럼 풍선가야지



특별한 만남, 고상연보좌관님

우리와의 짝센 일일 양곤투어 일정을 다 소화하시고 이번 중간평가 일정을 함께하신 고상연보좌관님.

벌써? 중간평가

양곤팀 중간평가회[22일 오후3시]

양곤ymca이사님들, 우판냐총장님, 산드라간사님, 쏘리, KB국민은행 권기돈차장님, 동화간사님, 규홍간사님, 울산ymca 박장동총장님과 근육맨선생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뜻깊은 시간.



벌써? 중간평가



←
KB국민은행 양곤대표부와
KB어학당 방문
권기돈 차장님과 함께.



거의 매일이었던, 행복한 만찬들. →
난희, 은정 왓! 중간평가 딱 끝나면
다이어트 시작이다잉



중간평가를 마치고,



자, 이제 중간평가도 끝났는데,
다들 어땠나요?

난희' 중간 평가 기간에 한국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과일도 많이 먹고 그 어느때보다 세심하게 케어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그냥 평소처럼 장난치고 놀던 솔리가 어색하게 웃고 있을 때가 많았었고, 리셉션 친 구들이나 하우스 키핑 이모들이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하는 것 같았다. 모르겠다. 그저 나 혼자서만 거리감을 느낀 것일 수도 있다. 아 물론 나는 한국 사람이 맞지만.. 가끔식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친구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뜨끔없지만 동화간사님 개인면담 할 때 이뻐어요, 그리고 규홍간사님 저랑 진짜 이야기 안 통해서 재밌었구요, 기쁨언니 또 만나서 이야기해용용용♥ 박장동 총장님 다음에 빌때 꼭 같이 당구 쳐요!!!

근육맨 선생님 브라우니 끊었습니다.

권기돈차장님 저희 신문에 났습니다!! 보좌관님 인생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성주' 중간평가라 쓰고 **중간격려**라 읽는다는 표현이 맞을까. 1주일동안 함께 많은 것을 했던 규간사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무게감 만큼은 확실했던 동화쌤, 그리고 울산Y총장님과 선생님, KB차장님과 국회 보좌관님까지. 우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자리해 주셨다. 정말 많은 격려를 받았고, 그렇게 또 하나의 내 고민은 답을 찾게 되었다.

중간평가를 마치고,

자, 이제 중간평가도 끝났는데,
다들 어땠나요?

진우'



사단장님의 방문이 있었다. 연병장 흙먼지를 흔적도 없이 쓸어내듯 그들의 동선(動線)에 맞춰 차량과 일정이 준비됐다. 식사도 짬밥이 아닌 특별식으로 제공됐다. 복장 점검부터 훈련 예행연습까지 마무리 된 뒤에야 중간 평가는 진행됐다. '잘 지내고 있는지.'는 내무반과 훈련장을 한 바퀴 순시하는 걸로 갈무리됐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사단장 명의 격려용 하사 식품처럼 익숙한 인스턴트 한식들이 남았다.

은정' 벌써?중간평가라고?좀 더 있다오셔도 될것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도 양곤에서의 5개월 중에 반쯤은 더 보낸 시점에서, 한 번 잠시 서서 뒤돌아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중간평가기간 자체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서 다 떠나 시고 난 뒤에는 사실 엄청난 피로가 몰려와서 힘들었지만, 멀리서도 우릴 지켜보시고 신경써주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
주은지간사님 편지와사랑 잘 전달받았구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축백♡
남은 두 달도 잘 살아보자



과일, 이난희 선생

망고 (띠예띠)

가격: 솔레퍼고다 근처에서 '천원에 네 개'로 살 수 있음.
과일 파는 아저씨에게 잘 생겼다고 다섯 번쯤 말하면 이 천원에 아홉 개가 가능하다.
맛: 샤워하고 난 뒤 먹는 망고는 엄마랑 다투고 난 후 서로 뽀루통 했는데
저녁 밥상에 내가 좋아하는 잡채가 나왔을 때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망고스틴(밍꼬띠)

좋은 것은 여섯 개에 천원인데 아주머니와 쇼부를
본다면 여덟 개에 천원이 가능하다.
맛은 그냥 달달한데, 그냥 생긴 게 예뻐서 먹는다.
이름도 좀 예쁜 것 같다. 망고스틴이라니

과일, 이난희 선생



리치(라우치)

가격: 다른 과일은 기본 가격대가 천원부터인데 이천원부터 시작한다.

맛: 밀는 도끼에 발등 찍힌 맛이다. 선키스트에서 파는 리치맛 스파클링 5개 사먹는 게 더 낫다.

람부탄(짬무디)

가격: 한 개에 오십원에서 백원

맛: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도통 무슨 맛인지 몰라서 배부를 때까지 먹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냥 미안마 와서 먹어라. 소면 사드립니다.



두리안

가격: 물어보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두리안을 팔고계시는 근처에도 가기가 힘들다.

냄새: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달걀+고구마 빵귀를 꺾는데 다들 모른 척할 때의 그 기분, 그 냄새, 그 짜증스러움.

돌아왔다! 기타교실3

박은정(기타와 함께 잠을)

기타를 샀었다. 기분 좋게 샀었다. 근데 그게 말이지 기분이 너무 좋았나보다.

그대로 기분 좋게 잠을 자기 시작했다.

기타를 알려주러 여학생들의 방에 갈 때면 항상 기타가 자기 주인 침대에 놓여 있다(친절하게도 매년 선생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매년 반듯하게 누워있다. 본인 말로는 내가 오기 전까지 계속 연습하다가 이제 막 쉬는 거라고 주장하던데. 이상하게도 내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본적이 없단 말이지.

겨울잠 자기엔 아직 이른 시기라 조금은 걱정이 된다.

뭘 잠을 많이 자면 이뻐진다니깐...

어떤 쪽으로든 성과가 있길 응원한다 은정아.

의욕	★★★
꾸준함	★★
자립성	★★★★★
진도	★★★
잠	★★★★★★★

그래도 알려주지 않아도 따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노래 악보 찾아다가 코드는 잡아보더라. 뭘 코드 잡는 게 끝이고 아직 노래듣고 혼자서 연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디야. 크 대견해라.

그치만 노래 파일도 없이 대뜸 코드만 보여주고 나보고 알려 달라 할 때면. 하하하 이걸 확.

내가 모든 노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나도 노래를 들어봐야 연주법을 팔 수 있는 거라고.

(연습곡 10cm '10월의 날씨', Once ost 'Falling slowly', 원모어찬스 '널 생각해', 몽니 '술자리', '나를 떠나가던')



돌아왔다! 기타교실3

송진우(‘1회 10분’ 불변의 법칙)

내 손을 떠났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자립했다. 4월부터 5월초 베이네빈에서 마을살이 하는 동안 기타를 완전히 놔버렸던 학생이었기에 걱정이 앞섰지만, 양곤으로 돌아오면서 기타를 다시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적지 않은 곡을 혼자 연습하고 터득해나가기 시작했다.

그치만 ‘1회 10분’ 법칙은 여전히다ㅋㅋㅋㅋ진짜 웃긴 ㅋㅋㅋㅋㅋㅋㅋㅋㅋ참 부지런한 학생이란 말이다. 10분정도 치고는 질렸는지 기타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는다. 그러고는 또 심심해졌는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기타를 꺼낸다.ㅋㅋㅋㅋ

그럴꺼면 그냥 꺼내놓고 치다가 쉬다가 치다가 쉬다가 하면 될 텐데. 1번 칠 때 10분정도가 지나면 법이라도 정해져 있는 것 마냥 칼같이 끝내고 의무적으로 가방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한다ㅋㅋㅋㅋㅋ 보이면 볼수록 재밌는 학생이다.

이제 다음 6월 호 ‘성주의 기타교실’ 에 진우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이다. 자립했자나. 글 쓸 사람 한명 줄었네 휴.

의욕	★★★★
꾸준함	★★★★★★
자립성	★★★★★★
진도	★★★★★

(연습곡 Once OST ‘Falling slowly’, 이적 ‘걱정말아요 그대’, Steve Wonder ‘It’s she lovely’, ‘Stan by me’,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load’, The Beatles ‘Yesterday’, 장법준 ‘사말어사’, 아이유 ‘너의 의미’)

돌아왔다! 기타교실3

이난희(어긋난 위플래시)

대뜸 나보고 '우리 위플래시 짝자' 라 말하더라. 자기가 주인공처럼 미친 듯이 기타를 치겠다는 말로 나는 이해를 했고, 이 학생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젠장, 그 호기심이 내 위기심을 불러왔다. 내가 그 영화를 안 봐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결코 난희와 나는 위플래시를 찍고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다.

의욕	★★★★★★
꾸준함	★★★★★★
자립성	★★
진도	★★★★★
화	★★★★★★★

아직 덜 다듬어졌다. 연습하다가도 갑자기 속에서 화가 뿜어져 나올 때가 있지만, 아니 많지만, 그래 뜨겁게 갈구어졌다가도 이내 다시 연습하며 다듬기를 반복한다. 원래 대장장이들이 명품 접을 만들기 위해 철을 수도 없이 뜨거운 불 속에 갈구고 다듬기를 반복하지 않던가.

본인은 아직도 스스로의 학습 속도에 열불나 하지만, 3월 처음 기타 시작했을 때의 그 코드하나 잡겠다고 찢찢매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단 걸 난 안다.

아직 덜 다듬어 졌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 더 다듬어 질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만큼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니. 미얀마에서의 마지막 목표 곡 '노스텔지아' 를 마스터 하게 되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길. 아 그리고 기타 배울 때 인상 좀 그만 써라 나무섭다.

(연습곡_Once OST 'Falling slowly',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나르샤 'I'm in love', 브리즈 '뭐라할까', 윤도현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만큼', 이적 '걱정말아요 그대')

돌아왔다! 기타교실3

허성주(침체기)

양곤으로 돌아온 후로 내 기타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같다. 이래저래 여기저기 다녀오고 정말 바빴다. 중간평가 영상 만들겠다고 일주일 넘게 거기에 매달리고. 또 그놈의 350ppm 노래 만든답시고 계속 체자리 걸음중이고. 저번 달에 마을살이 하며 한 단계 성장했는데 이제 다시 침체기에 접어든 것 같다. 하지만 걱정되진 않는다. 언제든 시간적 여유만 생긴다면 다시 또 기타만 치게 될 거란 걸 알기에.

아, 성주의 기타교실 3월호를 재미있게 봤다는 몇몇 분들의 말을 전해 들었다. 감사하다. 그래서 부담된다. 진짜 무슨 칼럼 쓰는 기분이 드네.



개인 에세이

이제 딱 절반이다. 아니 5월이 끝났으니 반도 안 남았구나. 그동안 나는 어떻게 지내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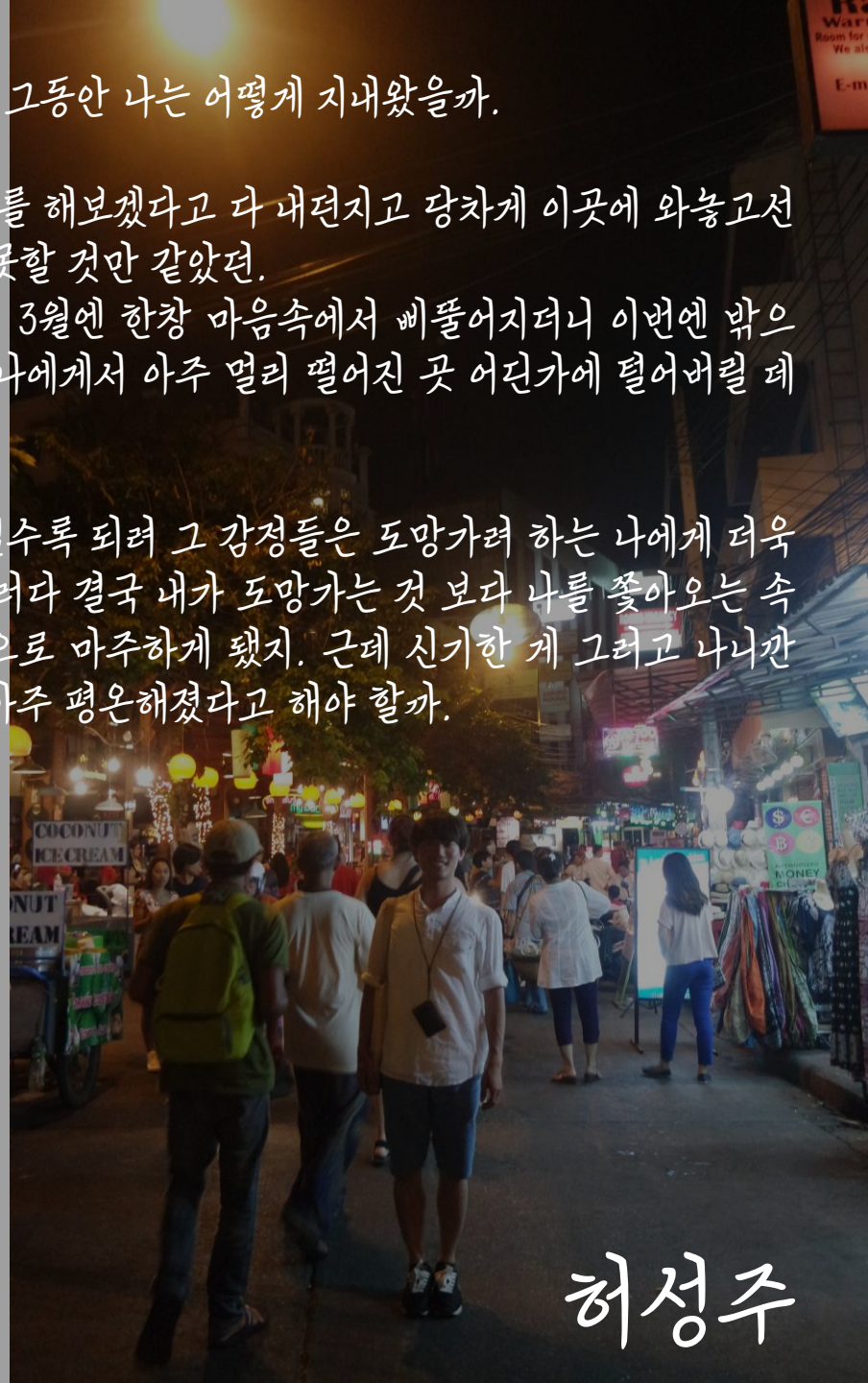
3월. 그래 오춘기였지 그때는. 자원 활동하겠다고,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다 내던지고 당차게 이곳에 와놓고선 한참을 빼풀어질 대로 빼풀어졌었지. 다시는 헤어 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던.

4월. 아 생각해 보니 이때도 오춘기였네. 어휴 참, 길었다. 3월에 한창 마음속에서 빼풀어지더니 이번엔 밖으로 나돌아 다녔지 내가. 무언가 정리되지 않는 이 기분을,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어딘가에 떨어버릴 데 없을까 하고 찾아 다녔던 것 같아.

그리고 5월. 떨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럴수록 되려 그 감정들은 도망가려 하는 나에게 더욱 더 빠르게 다가왔어. 나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였을까? 그러다 결국 내가 도망가는 것 보다 나를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잔뜩 긴장한 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지. 근데 신기한 게 그러고 나니깐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 한 칸이 답답하지가 않아. 오히려 아주 평온해졌다고 해야 할까.

계속해서 도망치려 하고 그 감정들과 거리를 두며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했을 땐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자포자기하고 올 테면 와봐라 했더니 오히려 그것은 마치, 강아지가 오랜만에 보는 주인에게 달려가 똑 안기듯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잘 스며들어왔어. 그리고 이제는 예전의 나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내가 된 것 같아.

언젠가 또 다시 나에게 육춘기, 칠춘기가 찾아온다면 더 이상 거부하지 않으려고.
그 또한 내가 함께해야 할 내 모습이니깐.



허성주

양곤에서 살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삼시세끼 다 챙겨주는 분이 계시고, 에어컨 있는 쾌적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사는 것이, 평범한 미얀마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지게 사는 것이 라온아띠인가?"

물론 미얀마라는 나라 특성상 외국인은 숙박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기에 내가 생각했던 '라온아띠라면 이렇게 살겠지'의 전형적인 삶인 베이네빈의 생활을 무척이나 기다렸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 너무도 불편했었다. 모든 것이.

우물에서 씻으면서 다른 사람이 행여나 볼까 신경을 곤두섰던 것도 불편했고,

혼자서 쉬면서 일기를 쓰고 싶을 때 조차 나를 가만 두지 않는 동네 꼬마 아이들이 귀찮았고

밥 해먹을 때마다 기침을 수백번 하며 불을 피우다 보면, 얼굴에 숯검댕이가 되있는 것도 싫었고,

손톱 발톱에 때가 끼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것도 싫었다.

나는 결국 내가 센서티브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해야만 했었다.

개인면담때 동화간사님께서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신 적이 있다. 내가 우선 안정된 삶을 살아야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렇기에 이 곳, 양곤에서의 삶을 감사히 여기면서 사람들과 더 즐기면서 살라고 말해주셨다.

정말이지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다.

동화 간사님은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중에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보고 쪽 살았던 것 같다.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무의식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과 대면했을 때 내가 맞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관념을 가졌다. 그리고 내 방식만을 강요했다. 아직도 어렵다. 의견이 충돌하고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하나?' 라고 생각 할때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마지막으로, 간사님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온아띠에 지원했다는 내 개인 소감에, 나는 원래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하셨었다. 그건 솔직히 모르겠다. 깊이 와닿지는 때로는 화를 내고 짜증도 잘 내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베이네빈에서는 집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귀찮아서 때로는 무심하게 대한적도 많았다. 아 그건 정말 머야부.(괜찮지 않다)

그럼에도 어쩌면 앞으로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수있겠다 느낌이 들었다.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 스스로는 규정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한 인생의 철길이 좋은 방향으로 틀어진 것 같았다.

이난희

늦은 5월. 아직 우기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꽤나 많은 양의 비가 왔다. 두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나서야 맞는 양곤에서의 첫 비였다.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후두둑후두둑 내리는 소란스런 빗소리가 다소 낯설었다. 비는 다가올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전주(前奏)라도 되는 것처럼 바빠 내렸고, 그 날 비구름을 타고 한국에서 손님 몇 분이 왔다.

삼사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며칠이었다. 분주했었고 정신없었다. 날씨마저 이상하리만치 오락가락해서 있는 곳이 양곤이 아닌 다른 곳 같기도 했다. 뭔가 하나가 끝나면 사고라도 닥치듯 다음 일정을 향해 움직여야 했고, 멍하니 그저 앞사람의 발뒤꿈치만 쫓다보면 하루가 끝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손님들이 떠나는 날, 해가 떴고 익숙한 더위와 시간들, 일상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들. 익숙한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 과자, 사탕, 소주 그리고 아마 석 달 전쯤에 내 손으로 썼을 지원서와 편지. 여기 오고서야 들었던 고민 '왜 왔지?' 에 대한 답은 석 달 전의 내가 쥐고 있었다. 한 자 한 자 눌러쓴 지원서에서 엿보이는 우스운 노력들. 그저 해외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도 하며 좀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간단히 쓰면 될 것을 포장하고 또 포장해 고이 눌러 담은 지원서에는 그 시절의 내가 얼마나 이곳에 오고 싶어 했는지가 쪽팔릴 만큼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땐 무슨 환상을 품었기에 그토록 절실했고 또 그럴 수 있었는지.

두 달 남은 지금. 이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탓인지 남은 두 달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강 밑그림이 그려진다. 그 래서인지 몸의 반쯤은 이미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다. 동화쌤이 말한 그 '뭔가' 는 아직까지 알 길이 없고 그런 부담을 안을 바엔 차라리 모르는 걸 택하는 게 맘 편할 거란 생각도 여전히 있다. 어차피 난 결국 떠날 사람 이니까. 어쨌든 양곤은 다시 더워졌고 일상은 돌아왔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우기라서 제대로 된 비가 내릴 것 같다. 한국에서 맞는 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비가.

송진우

[5월을 보내며_감사]

나의 5월은 다사다난했다. 양곤에서의 규칙적인 활동 일정에서 벗어나 마을도 가보고, 뜻밖의 비자트립으로 방콕도 갔다오고, 오자마자 중간격려기간을 보내고 나니 곧 5월이 끝나있었다.

마을에서도 학교가 방학이라, 나는 우리팀이 확실히 뭔가 '할 일'이 없어서 너무 놀고 먹기만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 비자트립까지. 논다는 생각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니,

베이네빈에서 널서리 활동을 안했지만 그래서 또 다른 관계로, 관점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저 동네친구, 동생들이랑 놀듯이. 또 '학교 수업을 돕는 한국인 선생님들'로 보지 않아서 마을 주민분들도 나를 더 친근하게 대해주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널서리 수업이다 뭐다 딱히 우리가 '뭔가'를 하려하지 않아서 더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베이네빈에 스며들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뭔가 느끼거나 배우거나, 스스로 달리 생각하게 해보는 수 많은 생각들이 다 활동속에서 온 것은 아닌데. 일 같은 활동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왠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해야지만 뭔가를 배우고 얻을 것만 같은, 한국에서의 생각이 남았었던 건 아닐까.

사실 여기와서 나는 그냥 매일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든 활동에서든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고 생각했다.

그 속에서 내가 배울 수도 있고 뭐 아니어도 좋고.

그냥 지금처럼 누구든, 무엇으로든 순간순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지금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내 주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박은정

머혹페보
서하피서

꼭젠조따[감사합니다]

